

사조냉장(주), 돼지삼겹살 비난광고 사과

본회의 즉각 항의로 추가광고 중단 및 사과문 게재

참치회 생산업체인 사조냉장(주)이 지난 7월 12일자 스포츠서울 24면에 돼지삼겹살 비난광고를 게재해 전국의 많은 양돈농가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의 광고는 사조냉장이 자사 체인점 및 사원모집 광고를 하면서 “또 삼겹살이요?”라는 광고 제목에 “불고기도 좋고 삼겹살도 좋지만— 좀 지겹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기를 지나치게 먹으면 건강에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것 다 아시죠?”라는 문구와 성인 10명이 돼지를 거꾸로 해서(돼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흘림) 머리 위로 들고 가는 그림을 삽입한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본회는 12일 아침 스포츠서울 신문에서 문제의 광고를 확인하고, 즉시 사조냉장측에 전화를 해 광고내용의 저의와 광고게재 의미 등을 묻고 강력 항의했다. 본회는 이와 함께

즉시 각 도협의회에 광고문안을 FAX로 송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이후 전국 각 지부에서도 사조냉장측에 항의 전화를 했으며, 특히 부산·김해지부와 홍성지부에서는 집단 행동까지 할 태세였다.

사조냉장은 사태가 심각함을 알고 이날 오후 이항재 대표이사가 본회를 방문, 정식 사과하고, 스포츠서울 신문에 사과광고의 의미로 돼지고기 소비 홍보 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주간양돈정보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하기로 했다.

한편 본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5일 긴급 도협의회장단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도협의 회장회의에서는 사조냉장측에 추가광고게재를 즉각 중단할 것, 스포츠서울 동일 지면에 동일 크기(10단 전면 칼라)의 돼지고기 소비홍보 광고를 게재할 것, 주간양돈정보지에 전 양돈농가들에 대한 사과문을 게

재할 것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이에 사조냉장은 7월 13일 조선일보에 게재한 광고 내용을 즉각 수정하는 한편 타 신문에 광고를 중단했다. 또한 주간양돈정보지 7월 20일자에 사과광고를 게재했다. 스포츠서울 7월 24일자 24면에 돼지고기 소비홍보용 10단 전면크기, 칼라 광고를 게재했다.

본회는 전국지부에 7월 24일자 스포츠서울 신문을 발송했다.

사조냉장(주)는 사과문을 통해 “7월 12일자 스포츠서울에 게재된 폐사의 광고로 인해 양돈농가 여러분에게 본의아니게 누를 끼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히고, “휴가철 이전에 참치홍보보다는 직원모집, 가맹점모집에 비중을 두고 광고대행사에 광고제작을 위탁해 집행을 서두르다 보니 충분한 검토를 못했다”고 해명했다.

●